주 일 예 배

오전 11시 —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거룩하신 하나님(Give Thanks)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27	다 같 이
기 도	Prayer	박종갑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상17:38-50	인 도 자
설 교	하나님의 식으로 세상과 싸우십시오!	이진우 목사
찬양과봉헌	Hymn 399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박종갑 장로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예정)**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양육사역	
찬양사역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약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우리 자신이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6년 8월 27일 제4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원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이 가장 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적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병도 고칠 수 있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보편 타당해야 진리입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맞아야 진리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세상의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 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행복해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축복, 정말 빠듯하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난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축복, 세상의 높은 지위나 인정을 받지 못해도 당당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이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떠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영원한 평안함을 얻게 하는 축복입니다.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바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 이후의 구원은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죽기 전의 구원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식이 아닌 사탄의 뜻과 식이 통하는 세상을 거부하여야만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나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 하나님의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보였지만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선들 저 골리앗 같은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마도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란 거인을 맞서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처럼 보이는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힘이란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세상 식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악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계산과 비겁함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힘, 물론 이것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한 사람의 능력은 충분히 세상을 바꾸고도 남음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싸움터로 나가려하자 왕 사울은 자기 군복과 놋투구와 갑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익숙지 않자 곧 벗어버리고는 막대기와 물매돌 다섯 개,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시작도 그러해야 하고 끝도 그러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막대기보다 칼이 더 싸움에 유용하고, 목자의 제구보다는 군복과 갑옷이 전쟁에서 자신을 지키기에 유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물매와 돌 다섯 개만 들려 주셨습니다.

세상은 골리앗만 합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는 어린 다윗과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식으로 살아갑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도 성공합니다. 부자가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나 필요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처세술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하나쯤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이 바뀔 줄 알아 우리를 희롱하며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세상의 방식으로 대적해서는 세상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밀은 사람의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겁내지 아니하고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습관과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예배에 전심을 다합시다.
2. 다음 주일 낮 예배 후 8월 재정보고 및 첫 선교비 지출에 관한 회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3. 9월부터 시작하는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주일 낮 예배와 같은 순서와 같은 말씀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인터넷 선교를 위해 자유교회 홈페이지를 준비 중입니다. 정식 홈페이지 오픈에 앞서 미니 홈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http://cyworld.nate.com/libertycommunity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0.00	
감사헌금:	$40.00	
주일헌금:	$15.00	**합 계: $55.00**

금주의 중보기도

- 자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이민교회에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 이민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삶으로의 초대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글을 쓰다 맘에 들지 않으면 원고지를 구겨 버리고 새 원고지에 썼습니다. 인생도 그럴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보고,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겨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고엔 초벌이 있지만 인생엔 초벌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혹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쓰신 인생의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인생 캔버스에 그리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 그리길 원하십니까?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길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성경 안에는 참 많은 새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라면 저는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거부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의 인생이 갑자기 곤두박질했습니다. 타국에서 남의 집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팔은 형들을 원망하며 한 맺힌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되는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정직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순결했습니다. 이 네가지는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통해 살펴보면 새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요셉은 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 요셉을 통해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새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새 일을 맡기셨습니다.

요셉이 새 사람이 된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이 상황과 환경에서만 벗어나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뀝니다. 사람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새롭게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도 정직하고 온유하고 성실하고 순결하면 그 상황은 바뀝니다. 감옥이 궁궐로 바뀝니다. 종이 총리로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되면 정직하고 온유하고 성실하고 순결합니다. 그렇다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정직하고 온유하고 성실하고 순결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정직하고 온유하고 성실하고 순결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직과 온유와 성실과 순결은 새 사람의 결과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상태가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의 삶이 정직으로, 온유로, 성실로, 순결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를 입은 새 사람 된 우리는 정직합니다. 온유합니다. 성실합니다. 순결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새 사람이 됩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 사람인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서울 감자탕교회 전도지에서)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습관과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예배에 전심을 다합시다.
2. 다음 주일 낮 예배 후 8월 재정보고 및 첫 선교비 지출에 관한 회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3. 9월부터 시작하는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주일 낮 예배와 같은 순서와 같은 말씀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인터넷 선교를 위해 자유교회 홈페이지를 준비 중입니다. 정식 홈페이지 오픈에 앞서 미니 홈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http://cyworld.nate.com/libertycommunity

금주의 중보기도

- 자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이민교회에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 이민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 하나님 테러와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지배하게 하옵소서.